

광주시, 2순환도로 보조금 663억 지급 검토

3년간 지급 보류 1구간 민간사업자에

법원 “지급중지 행정처분 효력없다” 판결따라

광주시가 지난 3년간 지급을 보류해온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보조금) 663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법원이 광주시의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중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올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

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의 지급관계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에 따른 계약상의 법률관계”라면서 “광주시가 자본구조 변경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소극적 의사의 통지’일 뿐 실질적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광주시의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닌 만급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원고(광주순환도로투자)는 광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소송’을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라 민간사업자측이 조만간 광

주시에 보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보조금 633억원의 지급을 중단한 뒤 시 금고에 예치(연 1.5%)해 놓고 있다. 미지급한 663억원에 대해서는 2.9~3.5% 수준의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측이 보조금 지급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 인지도 2억5000만원, 변호사 비용 3억3000만원 등 6억원 안팎 소송 비용에다, 패소 시 민간사업자의 소송 비용마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633억원에 대한 이자도 20%대로 급등하게 된다.

시는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뒤 내주 중으로 지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측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중지한 상태로, 소송까지 갈 경우엔 실익이 없다는 의견 등이 있어 검토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보조금(MRG)을 지급해 왔으나 맥쿼리 측이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401억원의 추가이자를 받아갔으며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맥쿼리 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태로, 현재 자본구조 원상복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실종자 9명 보상시한 연장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 팽목항 찾아 가족 위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참사 발생 500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정 의장은 팽목항 임시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실종자 가족인 권재근씨·권혁규군 친척 권오복(60)씨, 조은화양 부모 조남성(53)·이금희(46)씨와 면담했다.

128명이 숨진 1974년 청량리역 대왕코너 화재 당시 희생된 장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아픔을 지니고 있는 정 의장은 “나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어 그 마음을 안다”며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수색 종료 선언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정부가 사고 해역에서 인양 준비에 들어간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인양 현장의 안전과 유실 방지에 힘써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금희씨는 “세월호 특별법의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가 다음 달 28일

종료되는데 지금 이런 일에 신경 쓸 수 없는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헤아려 달라”며 “9명의 시신 미수습자 가족만큼은 가족의 유해라도 찾은 뒤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의 심리 치료 지원과 그동안 함께 희생을 감내한 진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등도 요청했다.

정 의장은 하루빨리 세월호를 인양하고 그 안에 9명의 미수습자가 모두 있기를 기도한다”면서 “인양 중 철저한 유실 대비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신을 찾을 때까지 미수습자 가족을 배·보상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법사위원장 등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 밖에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건의와 팽목항 임시 분향소 운영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정기회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기회를 열고 제14대 전반기 임원 선출,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촉구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호남미래포럼, 지역 인재육성 지원 나선다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은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제홀에서 정취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남미래포럼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도 교육현황에 대한 설명과 교육현안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호남미래포럼은 앞으로 공동대표·고문·자문위원, 운영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고향 또는 출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배(멘토)와의 대화 및 특별강연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성교육 및 초·중·고 외국어 교육 등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도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올 상반기에 한수이사장(전 농림부장관), 전윤철 고문(전 감사원장), 허신행 공동대표(전 농림수산부장관), 김성호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수삼 공동대표(성균관대 석좌교수), 박승주 운영위원(전 여성가족부차관)이 고향(충신) 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배(멘토)와의 대화와 특별강연 등으로 호남인의 긍지와 꿈, 희망을 심어주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복지대화’ 개최

읍면동 협의체 대표 대상

전남도는 27일 이낙연 전남지사 주재로 읍면동 단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활동을 하는 ‘읍면동 민·관 복지협의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 등 34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체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못 드리고,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못 찾거나,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라며 “주위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특히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안부 살피기 전화 등을 조직화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복지수요 발굴사례 100명 가운데 6명이 민간조직에 의해 발굴된 점을 감안해 더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조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취업자수 1년만에 3만명 늘어... 일자리 정책 효과

지난달 전남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명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수도 2만5000명 늘었다. ‘정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민선 6기 도정 목표로 내건 전남도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전남도와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전남지역 취업자 수는 94만명으로 지난해 7월(91만명)보다 3만(3.3%)명 늘었다.

1년 이상 일자리가 보장된 상용근로자 수는 7월 현재 31만1000명으로 지난해 7월(28만6000명)보다 2만5000명 증가했다. 전남 지역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공공업(2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5000명), 건설업(1만3000명)은 증가

상용근로자 수도 2만5천명 ↑ 실업률 2.3%, 0.4%P 하락

했으며, 농림어업(7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5000명)은 감소했다. 반면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13.1%)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최옥희 고용동향담당은 “산업별로는 광공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자가 늘었고,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 농업·임업종사자, 기능공이 증가했다”며 “전남지역 고용률 증가 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남도의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계획’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말까지 고용률 70.0%, 취업자 수 38만6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일선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고용노동부는 추진 성과를 확인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조성 등 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 등 서비스업종과 석유화학·제철 등 기간 산업이 현재의 계획대로 유지 또는 활성화될 경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백운광주안과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져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시간 :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